

‘부처님되신날’ 정진열기 뜨겁다

전국 사찰 철야기도·음악회 등 마련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한 부처님되신날(성도절). 1월 17일(음 12월 8일), 불교는 전통적으로 부처님 되기 위한 용맹 정진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18편

올해에도 전국의 사찰들은 용맹 정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도절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용주사 수원 포교당(031-255-2692). 16일 오후 6시 저녁예불로 시작되는 전야제 행사는 진리·광명의 등 점등식과 국립국악원 소리꾼 강호주씨의 창에 맞춰 탑돌이로 분위기를 돋운 다음 화려한 불축음악회로 대미를 장식한다. 불축음악회에서는 테너 엄정행씨와 소프라노 박정희씨(수원포교당 합창단 지휘자)의 공연에 이은 남성합창단의 색소폰 연주, 가톨릭가 어머니합창단의 찬불가·대중가요 공연 등 클래식과 팝, 대중가요와 찬불가가 어우러져 축제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육천 대성사(043-732-5560)에서는 17일 오후 1-6시 율놀이와 노래배우기 등 부처님되신날을 경축하는 ‘축하마당’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축하마당은 지역민을 초청, 대중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와 대구 동화사(053-982-0101)는 17일 오후 4

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해 신심을 다진다.

10일부터 1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정한 서울 조계사(02-732-2187)와 봉은사(02-516-5652)는 특별 법문, 육법공양식 등 다양한 정진을 통해 부처님되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순천 송광사(061-755-0108)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저녁예불 후 자비수좌를 행한다. 대구 법왕사(053-766-9088),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 부산 관음사(051-293-9300) 등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특별기도정진을 갖는다.

평창 월정사(033-332-6664)는 참선과 1080배를 주제로 삼았다. 16일 오후 9시-17일 오전 3시 참선과 1080배 정진을 한다. 남양주 봉선사(031-527-1951)는 16일 오후 7시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1인 1등 ‘희망의 등’ 용맹정진 법회를 연다. 김천 직지사(054-436-6174), 경주 불국사(054-746-9912), 영천 은해사(054-335-3318), 서울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33-3161)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기도 법회를 연다. **박봉영 기자**

건설 공사로 도심사찰 몸살

서울 보승사·자인사, 수행환경 파괴

서울시내 사찰들이 도로건설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찰이 인접한 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행환경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종 보승사(주지 현중)는 대웅전에서 불과 4m 떨어진 지점에서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스님과 재가자들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보승사는 공사주체인 서울시가 공사에 포함되는 경내지뿐만 아니라 사찰 부지 전체를 수용하고 이전에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자리한 보문종 자

인사(주지 동희) 역시 아파트 재건축으로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 8월부터 3년 일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재가자들의 법당이 부분적으로 파괴됐으며,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 스님의 법패교육과 신도들의 신생활동도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자인사 총무 덕림 스님은 “관계 기관과 건설회사가 직접 나서서 종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사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요즘 학문하는 이들 너무 서둘러요”

신춘 원로대담

황수영 박사(前 동국대 총장)

- 대담: 위영란 편집부국장

▲건강한 모습 보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술화회에 가끔 원고를 내기도 하고, 힘닿는 대로 석굴암에 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문분열에 경제 불황까지 겹쳐 국민들에게 고통스런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나이지기를 바라는 국민 여망이 큰데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머잖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도 한국 전체가 산업화의 소용돌이에서 서구화를 지향하던 시절 역으로 우리 것에 관한, 한평생을 불교미술 연구에 바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여겨집니다.

-불교가 좋고 문화재가 좋아서 한 것일 뿐입니다. 스승인 고유섭 선생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이어 한 것이기도 하고요.

▲박사님 말씀 가운데는 늘 고유섭 선생님 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인연이 길지는 못했지만 매우 강렬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으니까요. 학창시절 방학만 되면 개성박물관을 찾아가 선생님을 뵈고 문화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나 즐거웠던지 매일 찾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선생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선생님의 자료를 인수해서 활자화하고 전집을 엮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집 작업 중에 자연히 선생의 뜻을 이어 문화재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지요.

▲박사님께 불교미술학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교미술 연구는 곧 우리 문화 정체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온 불교는 특정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문화와 일체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미술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미술학 분야를 개척하시며 하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후학들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시지요.

-요즘 학문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서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불교미술학은 급히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굴이라도 할라치면 묵묵히 땅을 파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석굴암의 보존불이 아미타불인지 석가모니불인지 아직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지요. ‘미타전’ ‘수광전’ 등의 현액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석굴암 건립 당시 아미타신앙이 융성했다는 역사적 사실, 서방에 앉아 계시다는 점 등 학술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보존불 수인이 항마촉지인이란 사실만을 근거로 석가모니불이라 주장한 일제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

‘바벨수록 돌아가라’ 되새겨야 할 때 기본 다지기, 다음 세대에 큰 자산

있고, 문헌 자료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득하니 연구에 매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게 불교미술학 연구입니다.

▲박사님의 얼굴이 서산에 있는 백제 마애불과 매우 흡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궤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찬입니다. 따로 불교적인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교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니다보니 명산대찰 안 기본 곳이 없고, 그게 또 큰 즐거움이다 보니 늘 밝은 표정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석굴암 연구 및 복원 공사를 위해 석굴암에 머물렀던 3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환희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에게 석굴암은 일생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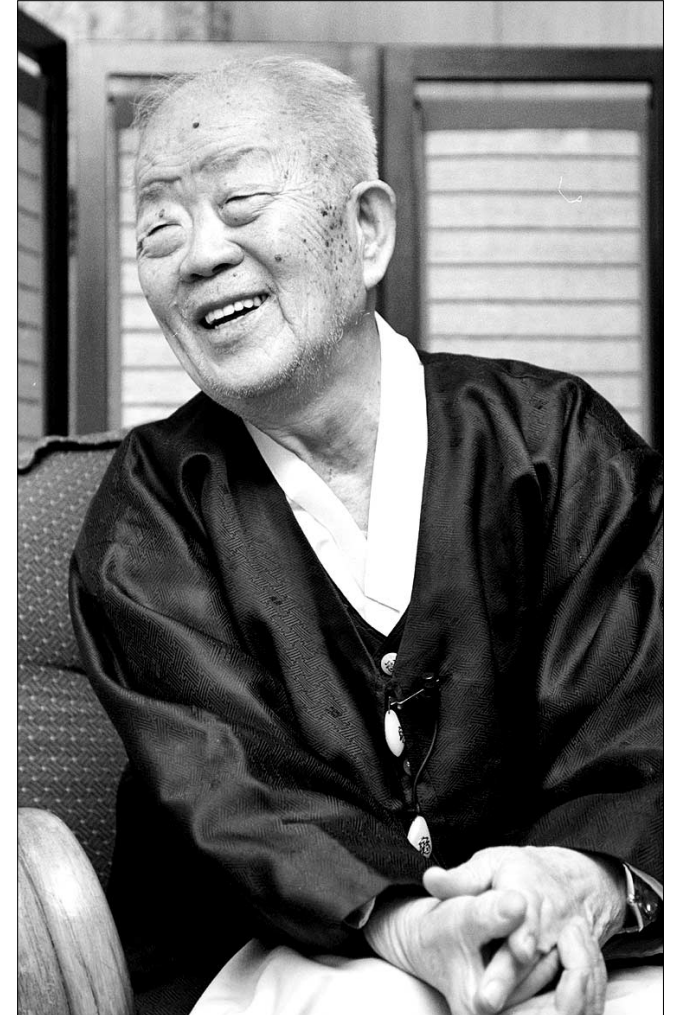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를 꼽으려면 단연 석굴암입니다. 그럼에

러니 석굴암 보존불 명호에 관한 연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문화재반환협상 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문화재 반환의 핵심은 우리 박물관에 있던 유물을 일본이 유출해간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유물장부를 근거로 협상을 벌였고 1천500여점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규모로서, 아쉬움만 남는 협상이었지요. 늦기 전에 유출 경로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고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는 10월이면 세계6위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고,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도 9월에 개관합니다. 우리 박물관계의 산 증인이



황수영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18년 개성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귀국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관으로 근무했다. 1972년 동국대에서 한국미술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동국대에서 교수·박물관장·총장을 지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했다.

로서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질적·양적으로 많이 팽창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수라 할 불교 성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산중 사찰의 성보들까지도 순환전시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득 문득 우리가 후손에게 어떤 조상으로 비쳐질까 걱정스런 마음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다지

는 것입니다. 그것이 뒷 세대에게는 진실한 자산이 됩니다. 화려하고 가시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당장은 멋져보여도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후손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줍니다.

▲올해로 미수를 맞으셨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하루 8시간 정도 잠을 푹 자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박익순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崇山堂 行願大宗師 49齋

歸依 三寶하옵고

금번 을유년 1월 16일(음 12월 7일) 일요일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셨던 송산당 행원대종사를 추모하는 49재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국제포교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큰스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국내외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길 앙망합니다.

불기 2549년 1월

- 일 시 : 불기 2549년 1월 16일(음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대적광전

원로 대덕 큰스님과 초청 내빈들께서는 사전에 참여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화계사 종무소 02) 902-2663, 903-3361

崇山堂 行願大宗師 문도대표 성 광 拜上